



‘위성DMB로 세상 바꾸겠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새 ‘테제’를 가장 앞서 충족할 DMB 서비스가 본격화하면서 통신사업자들과 방송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위성DMB 서비스를 준비중인 티유미디어는 위성DMB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이동형·개인형 방송이라는 위성DMB만의 차별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디지털방송 시대의 도래, 방송시장의 확대 등 방송환경의 변화로 인해 개인형·이동형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꾸며 위성DMB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티유미디어를 찾았다.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현재로서는 사업권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통신·방송 융합사업으로 육성한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DMB) 사업부가 ‘티유미디어’라는 사명으로 올해 초 공식 출범했다. 10대 젊은이(teenager)들을 상징하는 ‘T’와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U’, 그리고 고객을 지향하는(to you) 등의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젊은 층을 겨냥한 통신·방송 융합의 신개념 서비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티유미디어는 “사업권 획득과 상용서비스 준비 등 위성DMB 서비스 채비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에게 세계 최초 위성DMB 서비스 실시의 영예를 넘겨주게 된 것에 대해 모든 직원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티유미디어측은 “‘세계 최초 위성DMB 서비스 실시’라는 영예를 일본에게 넘겨주게 된 것은 아쉽지만 일본보다 앞선 수준의 위성DMB 서비스 제공으로 아쉬움을 달랠 생각”이라며 “9월 초 열린 ‘부산 ITU텔레콤 2004’ 행사에서도 선보였지만, 휴대전화 겸용 단말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단말기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티유미디어는 부산 ITU텔레콤 2004 전시회에서 국내는 물론



외국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통해 위성DMB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티유미디어측은 “위성DMB가 한국의 신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관련 장비 및 콘텐츠 업체들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에 조그마한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성DMB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디지털방송 시대의 도래, 방송 시장의 확대 등 방송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동형·개인형 멀티미디어 방송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하며 출현했다.

위성DMB 서비스 사업에 그동안 모든 준비를 다해온 티유미디어는 이동형·개인형 방송이라는 위성DMB만의 차별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티유미디어는 이동형, 개인형 방송으로 멀티미디어방송이 가능한 디지털방송이면서도 이동수신이 자유롭다는 위성DMB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방송이 고정형 방송 시장을 두고 경쟁을 벌여왔던 것에 반해, 티유미디어는 수신기, 시청 방법, 소비 형태, 화면 크기, 매체적 특성, 소구 시장 등 위성DMB를 기존 방송과는 전혀 다른 비경쟁 매체로 육성시킬 방침이다.

특히 위성DMB는 위성에서 전파를 발사하므로 태풍 등 어떠한 자연 재해 시에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재난방송, 공익방송의 일익을 담당할 계획이다. 유사시 기존 방송이나 통신이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방송 등을 활용한 미아찾기 등 다양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해 이동 중 개인 휴대가 간편한 매체적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공익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티유미디어는 자체 운영할 1개 비디오 채널을 모바일 전용 채널로 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주력 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이다. 티유미디어는 또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와 국내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모바일 전용채널에만 3년간 1,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티유미디어는 모바일 전용 채널은 100% 신규 콘텐츠로 채우고 신규 제작 프로그램 모두를 외주제작에 맡겨 국내 영상산업 발전 특히 독립프로덕션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모바일 전용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위해 기존의 많은 뉴미디어 방송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단순한 구매시스템에서 벗어나 연간 300억원 이상을 외주 제작사에 지원,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티유미디어는 이를 위해 현재 20여개 외주제작사들을 통해 기존 프로그램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하고 새로운 위성DMB용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방송편성은 주시청 시간대(프라임타임)가 출퇴근(등하교) 시간인 위성DMB 특성에 맞게 시청자가 직접 찍은 생생한 사건이나 사고 및 이색 현장소식과 그날의 이슈,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출퇴근 시간대에 각 1시간씩 생방송으로 편성, 주력 프로그램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7년까지 자체채널 육성, 프로그램공급사업자(PP) 지원 및 방송영상 산업 지원 등에 총 3,1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티유미디어는 우선 2005년부터 3년간 ▲콘텐츠 육성을 위해 연평균 370억원씩 총 1,100억원 ▲PP수수료 분배 및 PP 위성사용료 부담 등 PP 육성 지원에 1,963억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 채널운용과 관련, 티유미디어는 자체 운영할 1개 비디오 채널을 모바일 전용채널로 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주력 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이다. 티유는 이 채널을 100% 신규 콘텐츠로 채우고, 신규 제작 프로그램 모두를 외주제작에 맡겨 독립프로덕션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방송위원회가 KBS MBC SBS 등 기존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당분간 불허하기로 함에 따라 100여명의 직원들이 침울한 상태다. 게다가 위성DMB 사업자 선정 공고가 난 가운데 준비사업자인 티유미디어가 채널운용 계획 등 사업계획서 작성에 애를 먹고 있다. 지상파TV 재송신용으로 마련해둔 비디오 채널 4개를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자 신청 접수 마감인 다음달 10일까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채널 송출 계약 등을 밟기엔 시일이 촉박하다. 특히 방송위원회가 명확한 기한을 두고 지상파TV 재송신을 불허한 것이 아니라 내달 2~3월쯤 예상되는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시 재결정한다고 밝혀 통상적으로 1년 기한인 채널 송출 계약이 쉽지 않다.

티유미디어가 타 PP와 계약을 맺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 좋은 심사 점수를 얻기 힘든 데다 내년초 지상파TV 재송신이 허용될 경우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내년초 지상파TV 재송신 허용을 염두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는 방송위의 재송신 불허 결정을 거슬러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티유미디어 직원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타개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티유미디어측은 “위성DMB로 세상을 바꾸는데 티유미디어가 꼭 한몫하고 싶다”며 “이번 일로 사기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타개책 마련에 나서고 있고 위성DMB 서비스 사업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밝혔다. 